

‘아끼는 마음’으로 환경 교육




김영호
교장선생님

아침부터 잔소리가 발동하고야 말았다. 우리 집 둘째는 아침 샤워 때부터 신선이
라도 되는 양 뜨거운 온수의 김이 욕실 가득하도록, 물을 팔팔 쏟아지게 온수를 틀
어놓고 십여 분째 닦고 있었다. 그런 아이 곁으로 가 수도꼭지를 잠그라고 말했다.
“비누칠하는 동안엔 물을 잠그면 좋겠어. 아깝잖아.”

학교에서는 새로 채워둔 물비누 한 통이 1~2일 만에 바닥나고, 뽑아 쓰는 화장지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차오르는 화장실 휴지통을 비워야 한다. 교실엔 몇 글자
끄적이다 만 A4 용지들이 뒹굴고, 책상에 음료라도 한 방울 흘리면 그걸 닦으려고
티슈 서너 장을 툭툭 뽑는다. 일일이 지적하기엔 너무 쪼잔한 것들이 쌓였다가 팔
팔 틀어놓은 수도꼭지 앞에서 한숨만 내쉬고 말했다. 1인당 GDP가 1,000달러도
되지 않던 시대에 살던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행정실과 환경미화를
도와주시는 분들께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할 뿐이다.

1인당 GDP가 20,000달러인 시대에 살아가는 아들이 ‘아깝다’라는 말을 이해할까.
아들에게 살면서 무엇이 가장 아까웠냐고 묻자 대번에 답한다. “있어요. 돈요.” “다
른 건?”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린다. “어... 없는 거 같아요.” 천진한 표정의 아이에게
‘지금의 기후 온난화와 네가 틀 수도꼭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느냐’라며 일장
연설을 하려다 접은 것은, 사람은 한마디 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류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를 학교 교육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질문하며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학교는 재활용 교육, 학교 숲, 그리고 학교 텃밭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 시대에 적합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 배출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등 중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환경 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

10여 년간 치매로 고생하시던 아이들 외할머니는 사용한 휴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아픈 다리로 이 방 저 방 불을 끄러 다니며 ‘아깝다’라는 말을 달고 사셨다. 없이 살았던 세대의 고리타분한 절약 정신이라 여겼는데, 아이들 외할머니가 아까워하는 건 물건만이 아니었다. 집에서 키우던 화분의 꺾인 꽃송이를 아까워하시는 모습을 뵈곤 하였다. 그런 모습을 통해 “아까운 마음은 아끼는 마음과 같다”라는 걸 알았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용돈 말고는 아까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던 그 아이가 물과 공기와 햇볕과 바람과 나무를 아까워하게 된다면, 곁에 있는 이들,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 먼 나라 타인의 삶까지 아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보다 훌륭한 환경 교육은 없을 것이다.

